

동국무역, 고급형 스판덱스 매출 확대

위크아웃기업인 동국무역은 고급형 스판덱스 제품인 아라크라를 개발해 3월부터 본격 판매에 나선다고 2월7일 밝혔다.

아라크라는 기존 범용 제품에 비해 품질의 편차를 줄이고 촉감과 탄력도를 개선한 제품이다.

동국무역은 3월부터 전체 스판덱스 생산량의 40%인 600톤을 아라크라 제품으로 대체해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동국무역은 고급형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 2001년 1300억원에 달한 스판덱스 매출을 2002년에는 18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범용 스판덱스는 kg당 7-7.5달러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아라크라는 1.5-2달러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무역은 또 스판덱스 부문에서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생산시설을 국내 혹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세계 스판덱스 시장에서는 1위인 DuPont을 제외하고는 2-4위를 국내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DuPont과 효성이 지속적으로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고, 태광산업도 2001년 파업 이후 가동률을 꾸준히 회복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동국무역은 2001년 8170억원의 매출에 27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경상이익은 아직 최종 집계 끝나지 않았으나 매출액의 8.3%에 달하는 지급이자 등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매출액이 200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영업이익을 54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2/ 08>